불교 미래 청사진 바꾸는 대작불사 순항

백만원력 3년, 어떤 성과 일궜나

上 한국불교 대규모 목적불사 토대 구축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36대 집행부 핵심 사업
2019년 첫발…대작 불사 포함
불자들 적극 보시 원력 구심점
공감대 형성으로 3년만에 성과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불자 100만 명이 하루 100원씩 보시하는 모연 캠페인이 토대가 됐다.

한국불교 중흥과 백년대계를 발원하며 조계종 제36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속속 결실을 맺고 있다. 인도 부다가야에 건립된 첫 한국 전통사찰 분황사가 5월 준공식을 열었고 8월에는 신도시 포교중심도량이 될 세종시 광제사가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종단의 숙원과 제였던 대규모 불사들이 수많은 불자들의 십시일반 동참에 힘입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불자 100만 명이 하루 100원씩 보시하는 모연 캠페인이 토대가 됐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백만원력결집위원회 출범 후 3년 간 모금액은 7월 현재 138억원으로 매달 정기후원자는 2300여 명, 누적 동참자는 7만 5000여 명에 달한다. 이는 순수 모연을 통해 단기간 조성된 기금으로는 유례없는 수치다.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지난 3년 성과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조계종 제36대 집행부의 핵심종책사업으로 2019년 첫발을 디딘 '백만원력결집불사'는 종단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목적불사가 대거 포함됐다.

10대 사업은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건립 △불교병원·요양원 건립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기금 마련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세우기 예경사업 △10·27법난기념관 건립 △위례신도시 종교시설 건립 △나눔기금 조성 등이다.

이 중 열암곡 마애불 바로세우기 등 2건을 제외하면 모두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수적인 대작불사다. 동시에 오랜세월 종단 안팎에서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한정적인 종단 예산에서는 섣불리 추진할 수 없었던 숙원과제들이기도 하다. 백만원력결집불사 출범이 종단불사 체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백만원력결집불사는 출범 3년 만에 불사재정 안정화를 위한 확고한 토대로 안착했다.

신도시 포교를 위한 불사도 기대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다. 8월 9일 낙성법회를 앞둔 세종시 광제사가 대표적이다. 광제사는 종단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신도시 포교불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세종시 광제사 불사는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신도시 포교거점 사업을 종단 핵심종책 과제로 선정하면서 출발했다. 산중에 머물던 불교를 대중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력이었다. 2011년 종단 차원의 신도시 포교 계획을 구체화했고 이후 부지 매입에 박차를 가했다. 부지 매입 당시에는 모든 것이 종단 부담이었으나, 백만원력결집불사 출범을 계기로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었다. 광제사와 더불어 준공된 전통문화체험관은 한국불교역사를 계승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라 기대가 크다.

불교 문화유산 전반에 대한 보존관리 및 수리를 담당할 전문 연구시설도, 첫 계획을 수립한지 9년여 만인 지난 4월 26일 첫 삽을 떴다. 양평 불교문화재연구시설 건립불사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직결된 전통문화재 보존과 복원, 전승을 담당할 중요한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화재 시설의 필요성은 이미 '1994 조계종 종단개혁' 직후부터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30년만의 결실인 셈이다.

오랜 세월 진전이 없었던 여러 불사들이 본격화된 계기 또한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저력이다. 불자들이 적극적인 보시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한편, 한국불교 숙원 과제에 대해 인식하고 원력을 모아내는 구심점이 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불자들은 백만원력결집불사를 통해 스님들의 노후복지 참상을 알게 되면서 불교요양병원이 필요성을 인지하게 됐다. 또 조계종이 국가지정·비지정 문화재 상당수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교문화재 보존·수리 전문기관은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조계종 측은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없었다면 코로나19 시국에 수많은 대규모 불사들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불사는 규모가 크던 작던, 종단 기채승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추후 이를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발생한다. 백만원력결집불사가 시작된 후 동참자들이 증가하며 매월 쌓이는 금액도 늘어나 기채승인 부담이 줄면서 불사 기반이 탄탄해졌다는 평가다.

백년대계본부 측은 "백만원력결집불사는 길게, 그리고 멀리 바라보고 시작한 불사"라며 "한국불교 미래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불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7대 종교 지도자들, 사형제 폐지 촉구

7월 14일, 헌법재판소 앞서 입장문
헌재에 "사형제 위헌결정 내릴 것"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평등한 존엄을 선언합니다. 죽음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7대 종교 대표들이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사형폐지 의견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사진 위〉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와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은 7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문을 내고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이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국가가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참혹한 형벌로 복수하듯 생명을 빼앗는 똑같은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며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는 것,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가가 힘을 쏟아야 하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국회의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폐지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 집행 후로 25년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중단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Abolitionist in Practice Country)로 분류한 지 오래다. 임은호 기자

"비구니 스님들 고충, 반드시 해결돼야"

전국비구니회, 긴급회의서 결의
본각스님 "원력·결의 모아 변화"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가 7월 11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3층 만불전에서 개최한 '재단법인 선학원 소속 비구니사찰 보호를 위한 긴급회의'는 선학원 문제에 대한 전국 비구니스님들의 지혜와 결의를 모으는 법석이었다.

선학원 문제로 전국비구니회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전국 19개 지부 가운데 제주지회를 제외한 18개 지회에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회장 본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긴급회의가 소집된 이유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긴급회의의 시작은 원로의원 자민 스님의 전화 한통, 선학원 소속 스님들의 고통이 깊으니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해 달라는 요청에서 출발했다.

소임자들과 전국 120여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가 먼저 소집됐다. 비대면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80% 이상 스님들이 "일단 해보자" "긴급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지혜를 나누자"는 의견을 모아냈다. 본각 스님은 "오늘 긴급회의는 구체적인 사안과 현실을 공유하고 우리 비구니들이 지혜와 원력을 모아,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기 위한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통해 재단법인 선학원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한 철우 스님은 "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선학원 이사회가 과연 선학원에 등록한 스님들을 재단의 구성원으로 존중해 주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사찰의 소유권이 재단에 있으니, 창건주·분원장은 재산에 종속되오는 '관리인'에 불과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전국비구니회에서는 고통받는 선학원 분원 비구니들과 함께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이미 천명했다"며 "그들의 고충을 듣고 대중이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해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정인진 변호사는 "법적으로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다면 인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가야 한다. 이기는 싸움만 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7월 12일 조계종 총무원과 재단법인 선학원을 방문해 전국비구니회 결의가 담긴 호소문을 전달한데 이어, 대전 청화사에서 '제22차 수행결사'를 통해 지속적인 실천의지를 다졌다. 송지희 기자

사노위, 발달장애인 참사 49재…정부 지원 촉구

7월 12일, 삼각지역 내 분향소서
정부에 "국가 책임 다할 것" 요청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7월 1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 역에 차려진 분향소에서 발달장애인 참사 49재를 봉행하고 고인이 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사진 오른쪽〉

사노위 주관으로 마련된 49재는 사노위원 고금 스님이 법고를 두드리며 시작됐다. 100여명 의 동참자들은 사노위 스님들이 고인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염불을 진행하는 동안 발달장애인 부모 등 6명의 위패 앞에 국화꽃을 헌화했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종교를 넘어 49재라는 공동체 의례로서 시민단체와 종교계 연대 속에서 49일 동안 애도와 추모,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라는 목소리를 내 왔다"면서 "49재 원만 회향을 계기로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지원 법 등이 담긴 권리보장 개정안이 보완돼, 공적사회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9재 후, 삼각지역에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으로 행진한 동참자들은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가족 열위영가'가 적힌 위패를 태우며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어 원불교·천도교·천주교·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이 연대한 '5대 종단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지금 당장 만들어라!'는 제하의 입장문에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에 국가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코로나 이후 법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정 2022년 8월 24일(수) ~ 26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8월 24일, 수)	2일차 (8월 25일, 목)	3일차 (8월 26일, 금)
09:00~12:00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원리와 사례'	현대인을 위한 포교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뉴노멀 시대 온라인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